

제16회 아·태 전기통신협의체(APT) 연구반회의 결과



신 동 준

정보통신부 국제기구담당관실 국제기구담당

목 차

1. 개요	2.3 차기연구반 구성
2. 주요 회의내용	2.4 기타(CDMA시연회)
2.1 기존연구반 종결	3. 평가
2.2 연구반회의 개선	

1. 개요

아·태 전기통신협의체(이하 APT: ASIA-PACIFIC TELECOMMUNITY, '79년 창설) 3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 협찬 회원사, 국제기구 관계자 등 각국의 전기통신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제16회 APT 연구반회의가 개최되었다. 매년 각국의 전기통신 실

무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또는 회원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해 오고 있는 연구반회의는 APT내에서 총회, 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중있는 회의의 하나로 서울에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현재 우리는 정회원으로서 정부 뿐만아니라 KT, KMT, DACOM 등이 협찬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종순 전 정보통신협력국장이 APT사무총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번 제16회 APT 연구반회의에

서 논의되었던 주요 회의결과, 주요행사 및 평가를 요약하였다.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주요 회의내용

APT 연구반은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이 개최된 회의는 '93년에서 '96년간의 기존 연구반 활동을 종결하고 차기 연구반 활동('96년~'99년)을 확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또한 우리측이 제안한 연구반 운영 개선안이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다.

1. 기존 연구반 종결

기존 6개 연구반에서 다루었던 22개 과제를 종결하고 보고서를 마무리함으로써 '93년부터 3년간의 연구반 활동을 종결하였다. 연구반별 내용을 보면

가. 제1연구반(교환망)

제1연구반에서는 CCS7 교환망의 안정운용을 위해 ITU-T No. 7 신호망의 운용현황과 경험을 중심으로 신호망의 안정운용 방안을 권고하였고, 아·태지역 망관리시스템을 망요소관리 및 트래픽관리 관점의 현황조사와 통합망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전기통신시설의 불법이용 탐지방법 및 보호방안 등을 연구 논의하였고, 아울러 ISDN 번호준비계획 준비현황 조사 및 구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나. 제2연구반(전송시스템)

제2연구반에서는 300~700MHz 대역에서 디지털 UHF링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협대역 ISDN 구축조건 개선에 대한 논의, 도서지역

통신망관리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정보교환, 아·태 정보기반구조 구축과 관련 기술, 표준화, 서비스, 응용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연구, 보완토록 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다. 제3연구반(신기술과 서비스)

제3연구반에서는 아·태지역내 SDH 개발의 중요성, 계획, 구현, 운용전략에 대한 정보공유, B-ISDN의 배경, 국가별 활동, 국제 B-ISDN 시험계획, 서비스 계획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라. 제4연구반(이동통신)

제4연구반에서는 일본의 PHS 위주의 Cordless 기술을 중심으로한 Low-tier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현황 정리, LMSS(Land Mobile Satellite Service)의 용도, 기술, 현황 및 향후 연구과제, 스펙트럼 효율성과 주파수 문제, 범세계 LMSS와 지역 LMSS, 궤도, 위성간 링크등 육상 이동 위성통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 논의가 있었다.

마. 제5연구반(경쟁환경하에서의 전기통신사업과 무역관리)

제5연구반에서는 전기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부문에서의 필요준비 사항으로 AFR(Alternative Financial Resources), IPO(Initial Public Offering),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을 위주로 한 논의, 경쟁시대의 상호 접속의 원칙과 접속료 산정방법, 원가범위 산정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다.

바. 제6연구반(표준화 정책, 규제/조화 및 응용)

제6연구반에서는 아·태지역 정보통신 단말장치 형식승인 시험검사소 현황 점검, 표준개발과 적합성 시험을 위한 아·태지역의 적절한 메카니즘 고안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화 메카니즘과 교육에 대한 논의, 회원국간 시험장

비 교정 절차, 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인정된 시험 검사소에서 수행된 측정결과 인증과 보증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고 종료하였다.

2. 연구반회의 개선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분야에서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연구반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을 우리측이 제안하여 이를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연구반의 주요 연구방향을 정보기반구축(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구현에 초점을 둔다.
- 현 6개 연구반에서 4개(정책·신규서비스·무선망·유선망)반으로 재구성하고 반당 3개 과제 총 12개과제로 제한하며 점차 줄여나가기로 한다.
- 회의 개최기간을 주말 2일을 포함하여 7일로 하되 연구반별 회의 3일, 마지막 2일은 본회의로 운영한다.
-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목표, 추진일정 및 연구방법을 작성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후 승인을 받는다.
- 기타 간사 이외 1명 이상의 보조간사를 두어 연구를 수행하고 과제 수행기간은 융통성 있게 하며 정책과제의 비율을 높인다.

3. 차기 연구반 구성

우리측 개선안이 제안, 채택됨에 따라 동 개선안을 바탕으로 차기연구반 구성, 연구과제 선정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가. 연구반 구성

연구반은 연구반 전체의장, 4개의 개별연구반의장, 연구반별 과제의 간사, 보조간사로 구성키

로 하고 차기연구반 전체의장에 한국통신 강민호 해외사업본부장을 선출하였다. 정책분야를 다룰 제1연구반 의장은 일본, 신규서비스 분야를 다룰 제2연구반 의장은 호주, 무선망 분야를 다룰 제3연구반 의장은 인디아, 유선망 분야를 다룰 제4연구반 의장은 말레이지아가 각각 결정되었다.

나. 연구과제 선정

향후 연구과제를 아·태지역 정보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고 4개 연구반에서 각 반별 3개과제, 총 1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제1연구반(정책)에서는 정책 및 규제연구를 위한 전략, 지역표준화 협력방안, 상호접속의 규제적 및 상업적 측면을 다루기로 하였고
- 제2연구반(신규서비스)에서는 멀티미디어, ITS 및 VICS 개발전략, 인터넷 및 기타망의 응용을
- 제3연구반(무선망)에서는 무선접속기술 구현 및 운용(CDMA), 이동위성서비스 응용연구(VSAT), 개발도상국을 위한 농어촌 무선통신 전략을
- 제4연구반(유선망)에서는 미래 정보기반 구조를 위한 접속망, 정보기반 구조로서의 인터넷 및 인터넷, 정보기반 구조를 위한 광대역 망 기술을 각각 선정하고 이를 차기연구과제로 채택하였다.

CDMA관련 과제를 비롯한 각 과제별 간사 및 보조간사에도 우리측은 다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4. 기타(CDMA 시연회)

회의결과는 아니지만 회의기간중인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ETRI, KMT, STI 등 CDMA관련기관간의 원활한 협조하에 CDMA 시연회장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CDMA를 홍보

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타국과의 로밍문제, 타 이동전화망, PSTN등과의 연결시 Prefix 방법, 기타 기술적 특성 및 원리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부분 통화 품질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해 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CDMA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차기 연구과제로 한국의 CDMA를 선정 이를 연구키로 했다.

3. 평가

이번회의 성과를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첫째,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울러 우리측 주도로 기여, 노력한 연구반회의 개선안이 채택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받고 이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차기 연구반회의 의장에 한국이 진출함으로써 APT 역내 전기통신에 관한 중요정책 및 기술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통신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셋째, 아울러 동 회의 기간중 우리나라는 CDMA 시연회를 개최하고 차기 연구과제로 CDMA에 관한 연구를 포함 시킴으로써 아·태지역 전문가들에게 CDMA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홍보에 따른 동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와 아울러 이번 회의는 참석자 수(역대 연구반회의중 최대 참석자), 회의운영, 회의결과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을

참석자들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동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행사운영 및 오·만찬에 협조해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통신기술협회,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 데이콤, 신세기, LG 전자, 삼성전자, 현대전자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외국인들의 회의참석에 협조해주신 외무부, 행사기간내 안전에 협조해주신 경찰청 관계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는 세계화, 개방화, 통합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국제협력활동이 종전의 안보중심에서 통신을 포함한 환경, 노동 등 전문분야로 세분화되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전의 외교관 중심의 국제활동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한 각 분야별 전문가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 업무별 담당자들은 항상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협력 과정에 언제라도 참가하여 각 부문별 우리의 위상에 알맞는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다시말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해 가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우리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과 국제화도 적극 지원하는 등 국익을 최대화토록 평소 전문지식 뿐만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협력 담당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별 전문지식을 항상 보강해야 할 것이다. 